

일주문

인드라망수련프로그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4월 22~24일 인드라망수련원
남원 귀정사에서 인드라망 수련프로그램을
개최한다. (02)576-1886

마곡사 단기출가 개강
공주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은 5월
21일 개강하는 마곡사 단기출가 학교
제 1기 출가자를 모집한다. (041)841-
622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의지나눔 4기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4월 8일까지 '청소년 내 꿈 찾
기 의지나눔 Sharewill' 4기 참가생을
모집한다. (02)723-5101

동화사 일요 선지식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4월
10~24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총 3
회에 걸쳐 일요 선지식법회를 개최한
다. (053)982-0101~2

은혜사 어린이 토요문화학교
영천 은혜사 주지 둔관 스님은 매일
둘째, 넷째주 토요일 차·예절 교육을
진행하는 어린이 토요문화학교를 개
최한다.

해인사 2011판단대장경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4월 9
일 해인사 경내에서 제51회 판단대장
경대법회를 봉행한다. (055)934-3105

통도사 성보박물관, 단일계단 수계대상 교육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3
월 28일 통도사에서 제31회 단일계단
비구(니)계 수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특강을 개최했다.

이시우 박사, 천문강의 특강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3월 29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열린 불교미
래사회포럼에서 '북한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을 강연했다.

공불련 제20차 성지순례
하북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은 4월 9~10일 평창 월정사에서 제20
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7차 임원단회의
를 봉행한다. (02)739-1080

김의정 국립민속박물관회 신임회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3
월 29일 국립민속박물관회 정기총회
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노인문화사업 주력

서울노인복지센터 신임관장 영동 영국사 주지 청원 스님

"개관 10주년을 맞아 서울노인복지
센터가 한국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
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국사 주지 청원 스님이 3월 28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제5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청원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기존의 노인복지관과는 다른 노인
생활문화센터다. 급변하는 고령화 시
대에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월 신년
사업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센터 사
업의 전문화,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
렴을 통한 노인복지 프로그램과의 접
목, 지역사회와의 노인복지 활성화 △
자원 연계를 통한 센터 자원의 안정
화 및 실버문화벨트 사업의 활성화
△신노인 및 신규 회원 지속적 증가
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변화
적응 △실천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교
육, 수퍼비전 체계의 확립, 합리적이
고 효율적 운영개선을 △재수탁 3개
년 사업계획 단계 2년차 중간점검 및



평가를 운영방향으로 삼는다고 발표
한바 있다.

이에 청원 스님은 기존의 운영방향
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노인일자리사
업을 강화시킬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일자리 찾기에 관심을 많
이 갖는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인재
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노인취
업훈련센터, 종로고령자 취업알선센
터로 어르신의 능력개발에 힘 쏟을
것"이라며 "또한 고령자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참가연정, 은빛행복가게, 탐
리서치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
라고 말했다.

또 청원 스님은 특화사업 중 하나인
서울노인영화제와 서울시노인상담센
터에도 주력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서울노인영화제는 다른 복지관에서
볼 수 없는 특화된 노인문화사업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상담센터를 어르신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고, 가족과 같은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
고 강조했다.

청원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
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충북 영동
영국사 주지로 재임중이며 조계종 중
앙총회의원직을 맡고 있다. 영동사업
연합회장이기도 한 스님은 중앙불교
대학 봉사단과 연계해 지역 내 어르
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
해 왔다.

한편 청원 스님은 5월 중 센터 어르
신들과 첫 인사의 자리로 취임기념 시
사교양강좌를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서암 종정 불신임, 원로회의 답해라"

원두 스님, 서암 스님 열반 8주기 기념 퇴임사 낭독



조계종 종정이었으나 종단 사태로
조야에 묻혀야 했던 서암 스님의 열반
8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불교교단연구소 소장 원두 스님은 3
월 29일 서울 정토회에서 '서암당 흥
근 대종사 추도식'을 열고 1994년 서

암 스님이 자필로 남긴 '원로스님들께
올립니다'라는 퇴임사를 낭독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종정 비서실
장을 역임한 원두 스님은 "서암 스님
은 올곧은 수좌였고, 조계종단의 종정
을 역임하며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위

상을 점하던 수행자였다"며 "부처님
법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서암 스
님의 뜻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서암 스님의 복권을 주장하
며 "석존의 법·율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발표한 서암 종정에 대한 불신
임은 불조에 대한 불신임이자 불경"이
며 "원로회의 불신임이 없었음에도 승
려대중에게 '원로회의 종정불신임에
동의합니까'라고 묻은 것은 승려대중
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원두 스님은 2009년 서암 스님의
복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스님은 "3년 전 본인이 원로회
의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원로회의
는 이제라도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고 서암 종정을 불신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명예를 회복시켜야한
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나눔과 비움으로 성공했다"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 정각원서 강연



'호텔 경
영의 귀재',
'관광산업
의 대가', 장
경작 현대아
산 사장(68)
을 가르키는
말이다.

조선호텔과 롯데호텔의 대표를
역임하는 등 관광과 유통 부문의
전문가인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의
성공 비결은 나눔과 비움의 마음
가짐에 있었다.

2010년 3월 24일 대북 비전문자
출신 최초로 현대아산 사장 취임
하며 화제를 모았던 장경작 사장은
현대아산 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3월 2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신행과 경영'을 주제로 진행
했다. 장 사장은 강연회에서 "큰
원력에 따른 꾸준한 정진과 실천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작 사장은 독실한 불교신자
로 10년이 넘게 매일 하루 1시간
이상씩 사경으로 수행정진하고 있
으며 틈나는대로 부인과 함께 전
국 유명 사찰을 찾아 다니며 경영
의 지혜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은 사경을 하게 된 계기
에 대해 "어려서부터 다닌 절은 지
금와서 보면 건성으로 다닌 것 같
다. 몸이 아프면 약을 맞듯 사경 수
행도 인연이 닿아 시작하게 됐다"
고 말했다.

장 사장은 "부인은 아이들 입학
철이면 절에 다니며 수행활동을 시
작했다"며 "신행 생활은 마음이 항
상 따라가야 한다. 사경 처음에는
주변의 권유에서 시작했지만 두 번
째부터는 스스로 이 것이다 싶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사경의 장점에 대해
"사경을 하니 마음 관리가 된다.
스트레스를 받아 잠이 안오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경우가 줄고 욕
망과 욕심이 크게 줄어 사람을 대
할 때 보다 편해졌다"고 말했다.

10년간 <천수경>과 <금강경>,
<법화경>을 56번 사경한 장 사장은
"제주도 도립 스님에게 77세때
77번을 쓰고 회향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스님께서 108번하라고
하셔서 건강이 닿는데 까지 정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성공적인 경영
의 비결로 자리 이타의 마음가짐
을 꼽았다.

장 사장은 "남을 이롭게 하면 결
국 나에게 이롭게 된다. 배려의 마
음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며
"개인적으로 80%는 나를 위하지
만 20%는 남을 위해서 살자는 신
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장 사장은 "떡은 비우는 데서 나오
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장은 끝으로 "사경을 비롯
한 수행을 많이 해도 큰 원을 세우
지 않으면 차이가 없다. 생활에서
매순간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
했다. 노덕현 기자

장경작 사장은?

43년 8월 생. 68년 고려대 경영
학과 졸업. 68년 삼성그룹 인사. 삼
성그룹 비서실. 83년 신세계백화
점 이사. 93년 신세계백화점 부사
장. 96년 조선호텔·조선비치호텔
대표. 2005년 롯데호텔 대표이사
사장. 2010년 현대아산 사장

자비의 손길을 일본으로

동국대, 불광사, 흥국사, 화엄사, 재가연대

서울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일
본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922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3월 28일 전달했다.

29일에는 서울 불광사(주지 대
혜)가 1000만원, 송파노인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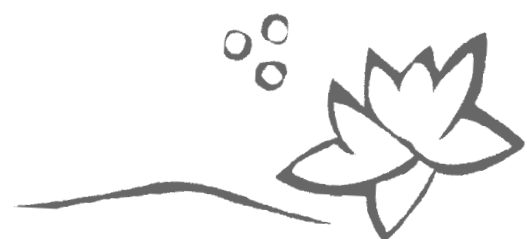
가 54만원,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
가 2000만원, 구례 화엄사(주지 종
산)가 29일 일본 지진 피해 돕기를
위해 1000만원, 4월 1일에는 참여불
교재가연대가 600만원을 전달했다.

박기범 기자

북한산(삼각산) 적멸보궁 노적사 (전통사찰 201호)

노적사 청년회 재창립 발기 및 회원 모집

청년 불자를 키워야 불교가 발전합니다.
불교의 중흥을 위한 제일 첫 걸음은 인재불사입니다.
젊은 불자들의 소통과 신행을 위해 노적사 청년회를 재 창립 합니다.
많은 청년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라오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



노적사 주지 종후 합장

문의 : 주지실 02)353-4924 / 대표 02)353-5016 / 팩스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노적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대한불교대각종

임원개편 및 수련대회

정통불교 대한불교대각종은 종단발전과 종도 교육을 위해
임원개편과 수련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 시 : 2011년 4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장 소 : 부여 백제 관광호텔 041)835-0870
문 의 : 총무원 041)832-1188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 교육원